행사 안내물로 인한 환경훼손 심각

부착에서 정리까지 책임지는 자세 아쉬워

휑하게 맞이하였던 5월, 이제 5월도 3분의1이 채 남지 않았다. 특히 5월달에는 여기저기 행사가 많아서 인지 다른 달보다 더욱 빨리 지나갔다는 느낌이 든다. 행사가 많아서 그런건지 모르지만 요즈음 대자보 판이나 벽, 바닥에는 온통 행사를 알리기위한 안내문으로 꽉 차 있는것을 볼 수 있다. 앞 앞쪽에 있는 벽에도 밑 아래 바닥에도 벽위에에 공중에도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모두 행사를 알리는 안내문이나 플랭카드로 차 있다. 물론 행사가 많아 안내할 것 이 많으니 안내문도 많이 붙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가만히 보면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도 그냥 붙어 있는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어떤것은 하도 오래되서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는 것 도 가끔 볼 수 있다. 이런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휴지가 되어 바닥에 굴러 다니면서 캠퍼스의 환경을 더럽히게 된다. 조그마한 관심이면 충분히 처리할수 있는 것인데도, 관심이 없는건지 잊어 버린서 떼지 않는건지, 그냥 그대로 캠퍼스의 환경을 망가 뜨리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일단 마구잡이로 붙여놓고 뒷처리는 나몰라라 해 놓으면 눈꼴 가리면 서리up 만큼 이름난 고대 캠퍼스의 품경을 외지에서 오는 이들이 보면 또는 처음 사람들이 보면 과연 "아! 역시 경희대 캐캠퍼스는 멋있어!" 라고 감탄하며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중 치더라도 학내 학우들이 이런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지 궁금하다. 환경문제, 환경문제라는데 그리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공간에 조금 이나마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아니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환경문제일 것 이다.

서 광 열
〈철학·2〉

삼의원 오픈하우스 전체 경희인과 같이해야

삼의원 사태 생활 3개월만에 맞이하게 된 오픈하우스! 타만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는 그 사실에 만도 좋아서 팔짝팔짝뛰던 기억이 난다. 방을 어떻게 꾸미고, 누구를 초대할까? 등등의 자질구레한 고민만으로도 내머리는 복잡해 죽을 지경이었다. 공고가 있은지 며칠후에 구체적인 행사계획표가 발표되었다. 남자사생에한한 miss삼의원선발, 퀴즈아카데미, 3분스피치, 장기자랑…, 진짜 다채로운 수학에 없는 행사일정표앞에 서서 나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갑자기 고문진앞에 걸린 플랭카드가 바쁘지는 느낌이 들었다. '오라, 삼의원으로 보라 오픈하우스를 그러한 플랭카드의 이면엔 이번 행사가 타만 삼의원사생뿐만의 행사가 아니라 경희학우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는 듯도 한데, 초대권을 발급해서 한정된 식당에서 행해지는 자잘한 행사들이 과연 제목을 다할는지 의심스럽다.

이 은 희
〈문리대영문·1〉

준비기간 촉박했던 대동제, 내용성 미흡 스스로의 비판, 창조적 노력 필요

5월13일 부터 15일까지 '5월 대동한마당제'가 펼쳐졌다.

이번 대동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준비기간의 부족이라고 여겨진다.

행사가 크게 부족했다고도 볼 수있으나 뭘쳐진 행사에서 대부분 오픈가 되어서야 준비되었다.

대부분의 서울 거주학생들의 귀가시간이 7시이전이어서 대동제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또한 정신적 여유 역시 대부분의 과에서의 학과일정에 있어서 '교육개정 확보투쟁'으로 시험일정이 연기되면서 학생들의 관심이 **빡빡한** 수업일정이나 시험일정에 상대적으로 더 쏠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대동제가 대부분 학생들의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 열렸으면 조금더 충실한 대동제가 되었지 않을까 생각 되었다.

그리고 행사의 내용적인면에서는 과별이나 동아리별로 문화행사, 전시행사, 학술연구발표행사보다는 각과와 동아리별 주점설치가 주를 이루어서 대동제가 단순히 놀고 마시는 행사로만 인식되는 느낌이었다.

또 14일에는 용왕대제전, 노조와의 연대집회, 장산곶매의 '닫힌 교문을 열며'등의 행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치루어져 학생들의 다양한 참여기회를 얻게 하지 않았나 하며 기획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그러나 비관만 한다고 해서 앞으로 발전된 대동제 행사를 만들어 낼수는 없다고 본다.

자기 스스로 피벌로, 동아리별로 비판하며 창조적 노력을 더 할때만이 뜻있고 보다 향상된 대동제를 만들어 낼수 있다고 본다.

정 연 경
〈서반아·3〉

말해봅시다

알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한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심히 들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서울·수원(본사편집실)

파손된 채 방치된 계단 학교측의 무성의함 야속해

수원캠퍼스는 학생회관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거의 다 파손되었다. 비고려지지 않도록 붙여놓은 타일도 반 이상 떨어져 나갔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들도 떨어진 채 그대로 덮혀져 있는 것이 많다. 또 시멘트도 떨어져 나간 곳이 많이 곳곳이 울퉁불퉁하다.

고르지도 않은 가파른 계단에 타임이 떨어지고 나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기위해 여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보기에도 나쁜 계단이 너두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같다.

지을 때 좀 더 탄탄하고 흠집없이 지었으면 좋았겠지만 이왕에 그렇게 못 한 것이라면 흠이 생길 때마다 바로 바로 고쳐주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비록 작은 게 단일 뿐이지만, 이 계단을 밟게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의 무성의함이 야속하기 그지없다.

오랫동안 방기진채 방치 되어온 계단이 하루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다.

박 영 태
〈정외·1〉

손 영 희
〈중문·3〉

도서관에 널려진 휴지와 음료수통 대학인의 문화의식 단적으로 지적

대학에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체의 심장만큼이나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대학의 목표중에 가장 중요한 '학문연구'의 터전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의 도서관은 문화의식의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듯 하다.

며칠전 혜관시간인 23시까지 있은적이 있었다. 가방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긴것은 책상위와 바닥에 널려있는 휴지와 음료수 빈통이었다 낮에는 거의 눈에 안 띈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빠져나간 광간에서는 양심의 부재를 비웃는듯 이리저리 나뒹굴어 있는 것이었다. 자기 휴지하나 제대로 안 치우면서 대학의 지성인이라고…

청소를 시작하시며 몹으라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저씨 보기가 괜히 민망해 화급히 나와 버리고 말았다.

사람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길 원한다. 그러나, 요즘 새삼 심각성이 대두되는 환경오염문제는 왜 생기는 것일까? 또 돈것은 우리들의 이기심때문 아닐까? 내가 버리고 간 휴지는 다른이가 청소해 줄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나의 양심은 누가 주워줄 수 있을 것인가? 젊은 지식인들에게 닥친 대의는 물론 많다.

그러나 그 정신에 있어, 타인의 휴지까지 주울줄 아는 애타심(愛他心)으로 시작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본적으로 타인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아주데나 휴지를 버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 새로워져야 할 것이다.

동문모임

중앙고 동문회

【서울캠퍼스】▲용산·수도=오는 28일 늦은 6시 대성관 ▲전주=오는 28일 늦은 6시 수화장 ▲부산 낙동·이사벨=오는 26일 늦은 5시 불새다방 ▲경희고·여고=오는 29일 늦은 6시 수화장 ▲여주향우회=오는 27일 늦은 5시30분제대앞녹원 ▲검도 14기 제1회 호구착복식=오는 30일 늦은 2시 노천극장 ▲경희펠스발표회및 송별제=오는 26일 늦은 3시 A.V센터 2층

【수원캠퍼스】▲중앙고=오는 28일 오후 5시30분 공대휴게실에서 ▲구로고=오는 28일 오후 5시30분 학생식당 ▲을문고=오는 28일 오후 6시 주차장 앞 학생식당 ▲조대부여고=오는 27일 오후5시50분 외대 장충식당 ▲여의도고=오는 29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가야성고=오는 28일 오후5시30분 공대휴게실

동 기

등기물 송무과로

【서울캠퍼스】▲수경(지리·2) ▲임정태(수학·2) 이종규(법·3) ▲임재인(법·2) ▲손정운(경영·4) ▲이범식(회계·1) ▲이지영(회계·1) ▲오정환(경영·1) ▲김순태(경영·1) ▲김인규(경제·30 ▲조재범(의대본·2) ▲얄윤석(의대예·2) ▲손호찬(의대본·3) ▲차재명(의대본·1) ▲박신정(한의대·1) ▲오승희(한의예·1) ▲한의대 학생회 ▲김선량(한의예·2) ▲무순식 (한의예·1) ▲전영환(한의본·4) ▲백건웅(한의본·2) ▲현한숙(한의예·2) ▲임희성(치의대·1) ▲장태은(기악·1) ▲윤은혜(음대·2) ▲이규성(아구부) ▲박충식(아구부) ▲추용건(테니스부) ▲최미호(삼의원·310)

【수원캠퍼스】▲이승현(서반아·2) ▲신승민(경영·4) ▲오진성(우주·1) ▲김동현(우주·1) ▲정의관(화학공·1) ▲한태동(화학공·1) ▲이준규(건축·1) ▲김경환(건축·2) ▲박명자(건축·2) ▲최영수(기계공·1) ▲우영진(토목공·4) ▲이혜영(도예·1) ▲서진기(태권도·2) ▲오세진(체육·2) ▲예영수(태권도·4)

알림대

습 득

분실자 본사 편집실

【서울캠퍼스】◆학생증=▲고재경(법·88) ▲이승재(법·90) ▲현광한(정외·90) ▲홍현근(경제·92) ▲홍승민(경제·90) ▲문병희(경영·88) ▲김하신(무역·90) ▲신하도(회계·89) ▲최균경(미교·91) ▲남우호(의예·90) ▲조유섭(한의예·85) ▲민경문(한의예·88)

【수원캠퍼스】◆학생증=▲윤순구(무역·91) ▲유재련(경영·91) ▲오혜식(경영·90) ▲곽임우(환경·90) ▲이창준(물리·91) ▲최승준(기계공·89) ▲장원도(전자공·89) ▲이재준(전자공·90) ▲이규웅(전자공·90) ▲지형두(건축공·87) ▲공성훈(건축공·89) ▲이진희(건축공·87) ▲박태현(토목공·90) ▲최인원(원자력공·90) ▲정훈화(토목공·89) ▲이성원9전산공·88) ▲김용환(산업공·90) ▲방원영(전자계산공·90) ▲차기자(도예·91) ▲조연진9임학·90) ▲이세헌(체육·91) ▲김진희(체육·91) ▲김동철(태권도·90) ▲김보준(태권도·89) ▲도서대출증=▲주동용(생장·88) ▲구형모(수학·89) ▲정만준(환경·87) ▲이세형(건축공·91) ▲정상훈9건축공·90) ▲조정범(상업용·87) ▲전병석(전자공·88) ▲전준재(전자공·90) ▲김오숙(전자계산공·90) ▲김상희(식품기공·89) 이승용(식품기공·87) ▲김봉식(체육·89) ▲카파 검은색손목시계 ▲갈색 여성용 손목시계 ▲은은색 파카 안내림

의상학과 작품전시회 바자회도 겸해실시

의상학과는 대동제기간인 26, 27일 양일간 작품전시회를 문리대 208강의실에서 가진다.

각 학년별로 연석, 스타일, 자화상, 연필추상의 분야를 선정해 제작한 100여점의 자가품을 선보일 이번 전시회는 바자도 겸해 가방, 쿠션, 발찌, 지갑토광 예쁜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시는 제게있어 종교와도 같습니다"

— 경희중학교 교사 신광호(국문 · 60) 동문을 만나

…

네 애들 착하지/착한게 제일이다/착해서 참 좋다/오! 착하신 나의 아버님//아버지 생각나면/아버지 보고 싶으면/

시 '백두산천지'로 제8회 경희문학상을 수상한 신광호(국문, 63년 졸) 동문이 그의 세번째시집 '내 기억속의 푸른 사랑'을 내었다 '이 시집을 작년에 가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 바칩니다'라는 시집 첫머리의 헌사에서 영롱한 그의 시심을 엿볼 수 있다.

그리움의 메트에서도 영롱한 그의 이번 시집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의 심정을 담고있다. "제 아버지는 대밭이 아버지와 똑같으셔죠. 그런 아버지가 싫었지만 불효자는 노약해지시고 결국 작년에 돌아가시게 되지 정말 많은 후회가 되며군요. 더 잘 모실걸 하는…."

"네 애들 착하지/착한게 제일이다/착해서 참 좋다/오! 착하신 나의 아버님//아버지 생각나면/아버지 보고 싶으면/"

시 '백두산천지'로 제8회 경희문학상을 수상한 신광호(국문, 63년 졸) 동문이 그의 세번째시집 '내 기억속의 푸른 사랑'을 내었다 '이 시집을 작년에 가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 바칩니다'라는 시집 첫머리의 헌사에서 영롱한 그의 시심을 엿볼 수 있다.

항상 진취적 기상으로 살아나가야

60년 본교에 입학하여 우리나라 문단을 주름잡던 황순원, 조병화 **교양주동선생님이래서** 보낸 학창시절은 시에 대한 애정과 애교심으로 불태웠던 시기였다고. 학생회간부로서의 활동, 대학주보 1면을 장식했던 그의 축시, 파감한 여러 발표에서의 눈부신 활동등을 자랑삼아 말한다. "제학시절이나 지금이나 애교심하나는 빠지지 않습니다. 사회생활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은 갖을 수 없지만 경희가 잘한다는 소식은 항상 절 기쁘게 합니다"어려웠던 순간을 항상 '경희정신'을 새기면서, 결코 타락교에 뒤지지않는다는 투지로 이겨냈다는 신동준은 '해낼수있다'는 자신감으로 살면 못하는 일이 없다며 기였다고. 학생회간부로서의 활동, 대학주보 1면을 장식했던 그의 축시, 파감한 여러 발표에서의 눈부신 활동등을 자랑삼아 말한다. "제학시절이나 지금이나 애교심하나는 빠지지 않습니다. 사회생활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은 갖을 수 없지만 경희가 잘한다는 소식은 항상 절 기쁘게 합니다"어려웠던 순간을 항상 '경희정신'을 새기면서, 결코 타락교에 뒤지지않는다는 투지로 이겨냈다는 신동준은 '해낼수있다'는 자신감으로 살면 못하는 일이 없다며 가 나의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요. 하지만 시집을 낼때면 언제나 부끄럽습니다. 좋은 시를 쓰드다보면 시집은 나올수가 없죠. 그저 그동안 써 놓았던 내 목소리들을 좋든 나쁘든 내보내야한다는 기분이죠"하고 신동준은 말한다. 또 이렇게 누이의 죽음에 대한 진한 슬픔과 6·25동란때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뼈의 외로움이 지금의 시인으로서 자신을 만들었다고 털어놓는다. "세상사람들이 쉽게 외울수있는 시를 쓰고싶어요. 세상이 어지러우면 시도 많이 나오는 법이지요. 하지만 진실된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시는 과연 몇편이나 될까요. 그러한 시를 내 일생에 한편만이라도 남길수있다면 더 큰 소원이 없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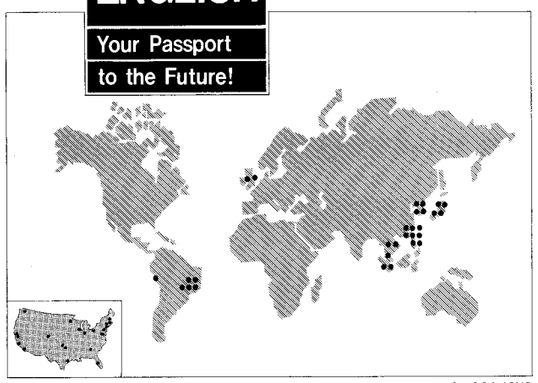
요즈음 가요의 노랫말이 너무 퇴폐적이고 얄팍하다고 지적하면서 오는 12월 여러 시인들과 작곡가들의 뜻을 모아 시에 아름다운 곡을 붙여 발표하는 행사를 준비중이고 그동안 간간히 발표되었던 글들도 모아 신문집을 낼 예정이라고.

국제 P.E.N한국본부감사로도 재직중인 그는 슬하에 1남1녀를 두고있으며 돈많이 벌어오는 아버지는 되지못하지만 떳떳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말을 맺었다.

〈서돌〉

ENGLISH

Your Passport to the Future!



ELS LOCATIONS

ELS® SEOUL

ELS는
English Language Services의 약칭이며,
미국의 권위있는 영어학자들을 주축으로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수 방법의 연구 및 교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적인 영어교육, 연구기관입니다.

ELS Language Centers는
ELS가 직영하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영어교육 기관으로서, 미국내에 21개의 ELS Centers와 29개에 달하는 본교를 전세계에 갖고 있는 명실 상부한 최고의 영어교육기관입니다.

ELS는
본부를 LA에 두고 있으며, 30년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장 효과적이며 실용적인 교육 Program을 갖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ELS강남 565-0509 ELS종로 278-0509 ELS서초 585-0509

● 21 USA LOCATIONS
• ATLANTA • BOSTON • CHICAGO • CLEVELAND • DENVER • INDIANAPOLIS
• NEW YORK CITY(2) • NORMAN • OAKLAND • OKLAHOMA CITY • PHILADELPHIA • ST.PAUL/MINNEAPOLIS
• ST.PETERSBURG • SAN DIEGO • SAN FRANCISCO • SANTA MONICA • SEATTLE • WASHINGTON, D.C.

● 29 INTERNATIONAL LOCATIONS
• SEOUL(3) • PUSAN • OSAKA • TAICHUNG • BANGKOK(2)
• KUALA LUMPUR • KOBE(2) • TAIPEI(6) • JAKARTA • LIMA
• SAO PAULO(5) • TOKYO • KAOHSIUNG • LONDON(2) • BANDUNG